전남음악창작소, 트롯 천재 최수호와 송년콘서트 개최

18일 강진아트홀, 지역 대표 뮤지션과 인기스타의 콜라보

조선판스타 우승 김산옥, 재즈계의 별 고아라 등 '총출동'

(재)강진군문화관광재단 전남음악창작소가 오는 18일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5년 한 해의 성과를 군민과 나누는 특별 기획공연 「2025 전남음악창작소 뮤지션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전남음악창작소가 발굴, 지원한 지역 뮤지션들의 우수한 역량을 선보이는 쇼케이스이자, 최근 트로트계의 아이돌로 급부상한 가수 최수호가 함께해 '뿌리(강진의 소리)', '줄기(창작소 뮤지션)', '꽃(최수호)'이라는 세 가지 테마로 구성해 전통과 현대, 지역과 대중을 잇는 감동적인 무대를 선사할 예정이다.

◆ 전남음악창작소가 키운 '국가대표급' 지역 뮤지션 총출동

이번 공연의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전남음악창작소의 체계적인 음반 제작 지원을 통해 성장한 실력파 뮤지션들의 무대이다.

먼저, 소리꾼 김산옥이 무대에 오른다. 전남대학교 국악학과를 졸업하고 2008년 제9회 영광법성포단오제 전국국악경연대회 일반부 장원을 차지하며 실력을 입증한 김산옥은 2021년 MBN '조선판스타'에서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았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그동안 주목받은 노래와 신곡 '빛이 된 당신' 등을 통해 깊이 있는 울림을 전할 예정이다.

재즈와 국악의 크로스오버를 이끄는 건반 연주자 강윤숙의 활약도 기대를 모은다. '강윤숙의 재즈여행', '리디안팩토리', '화양연화'의 리더로 활동 중인 그녀는 전남음악창작소 음반 제작 지원사업에 선정돼 무려 4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한 바 있다. 제28회 임방울국악제 퓨전국악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한 저력을 바탕으로, 대중에게 낯선 국악과 클래식 재즈를 친숙하게 편곡해 선보인다.

이번 공연의 음악감독이자 편곡을 맡은 최수희도 주목받고 있다. 뉴욕 퀸즈 칼리지 석사 및 파이브타운스 칼리지 박사 과정을 마치고 지역에서 활동 중인 재즈 뮤지션으로, 전남음악창작소 지원을 통해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최수희는 국악의 선율에 재즈의 색채를 입히는 독보적인 편곡으로 광주문화예술회관 개관 20주년 공연 등 굵직한 프로젝트를 이끌어왔으며, 이번 공연의 전체적인 음악적 완성도를 책임진다.

보컬 고아라는 2016년 재즈 피플이 선정한 '라이징 스타' 출신으로, 현 동신대학교 뮤지컬 실용음악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2021년 KBS1 '열린음악회'에서 바리톤 김동규와 피날레를 장식해 화제를 모았고, 예술의전당과 세종문화회관 등 국내 주요 무대에서 활약해 온 그녀의 호소력 짙은 목소리가 강진의 겨울밤을 수놓을 예정이다.

이들과 함께 기타 김수곤, 베이스 전사무엘, 드럼 윤영훈, 건반 이지연 등 전남음악창작소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최고의 세션들이 참여해 밴드 사운드의 진수를 보여준다.

◆ 강진의 손자, '트롯 밀크남' 최수호의 금의환향

공연의 피날레는 '국악 트롯 요정' 최수호가 장식한다. 2002년생인 최수호는 TV CHOSUN '미스터트롯2'에서 최종 5위를 차지하며 스타덤에 올랐고, 현재 '현역가왕2' 등 다양한 방송에서 맹활약 중이다. 판소리 전공자다운 탄탄한 기본기에 아이돌급 비주얼을 갖춰 남녀노소 모두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다.

특히 최수호에게 이번 강진 방문은 더욱 각별하다. 강진군 칠량면 월송마을이 그의 외가이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 시절 추억이 서린 강진에서 지역 어르신들과 팬들을 만날 수 있어 설렌다"며, 자신의 히트곡인 '조선의 남자', '인연' 등을 열창하며 강진군민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군민과 하나 되는 화합의 장… '강진군민의 노래' 재탄생

이번 공연은 관객이 단순히 보기만 하는 공연이 아니라 함께 참여하는 무대로 꾸며진다.

식전 공연인 풍물패 장터의 '여는 소리'를 시작으로, 강진의 전통 민요인 강강술래를 지역 주민과 뮤지션이 함께 재현하며 공동체의 결속을 다진다.

특히 하이라이트는 국악 크로스오버 버전으로 새롭게 편곡된 '강진군민의 노래' 제창 순서. 익숙한 멜로디에 현대적인 감각을 더해, 600여 명의 관객이 한 목소리로 노래하며 2025년을 힘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새해를 다짐하는 감동적인 순간이 연출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진군문화관광재단 김기태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은 우리 지역 음악인들이 얼마나 훌륭하게 성장했는지를 증명하는 자리이자, 대중 스타와 지역주민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축제"라면서 "강진의 문화적 저력을 느끼고 공연예술의 갈증을 향유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공연은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전남음악창작소(061-433-3636)로 문의하면 된다.

강진/손경설 기자

진도군, '진도삼락 진짜배기 페스티벌' 12월 12일 개최

북(鼓), 필(筆), 홍(紅)이 빚어낸 진도의 정체성을 만나다

진도군은 오는 12일(금)에 철마공원에서 '삼락(三樂)마켓'의 대미를 장식할 '진도삼락 진짜배기 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진도의 세 가지 즐거움(삼락)인 북(鼓), 필(筆), 홍(紅)을 주제로 진도의 전통문화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며 모두가 함께 즐기는 체험형 축제로 기획했고, 행정안전부의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딩 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행사는 오후 5시에 '진도북놀이 팀'과 '서울 퍼커션 팀'이 함께하는 합동 공연 '무브:먼트 진도×서울'로 화려한 막을 올린다.

합동 공연은 옥주골창작소 사거리에서 철마공원까지 이어지는 길거리 행진(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이어 9명의 디제이(DJ)가 전통 가락과 전자음악을 결합한 '레드써클(Red Circle)' 공연을 선보인다.

현장에서는 연말 소망을 적는 '소원 카드 만들기'와 진도 사투리로 동화를 함께 완성해 가는 '사투리 동화 이어쓰기(릴레이)'가 운영되며, 방문객들의 참여가 더해질수록 하나의 공동 작품이 완성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또한, 지난 11월에 진행된 '홍주 칵테일 이름짓기' 공모를 통해 이름을 얻은 '허그도그', '바다길의 포옹', '관매밀화', 총 3종의 홍주 칵테일을 선보인다.

현장 방문객에는 1인 1잔의 시음 기회가 제공되며, 미성년자에게는 무알코올 음료와 코코아가 제공된다.

오후 3시부터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음료를 만들어보는 '무알코올 칵테일 바텐더 체험'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진도의 삼락(三樂)처럼 즐거움을 세배로 더하는 ▲럭키 3 이벤트 ▲숨은 글자 찾기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마련돼 축제의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축제는 진도의 정체성과 매력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며, 주민과 상인, 관광객들이 함께 어울려 진도의 흥과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이 될 것이다"라며, "방문객들이 진도의 삼락(三樂)에서 느낀 즐거움을 일상의 '삶락(生樂)'으로 이어가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진도/오재명 기자

광주시, 디지털아트 창작작품 24점 선보인다

9~21일 지맵서 '빛의 궤도' 주제 '디지털아트 컬처랩' 첫 공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9일부터 21일까지 광주미디어아트플랫폼(G.MAP)에서 '2025 디지털아트 컬처랩' 첫 공개 행사를 연다.

'2025 디지털아트 컬처랩'은 총 24팀이 24개의 디지털 작품을 선보이는 대규모 창작 프로그램이다.

예비·신진 디지털 작가 8팀과 글로벌 작가 2명이 프로젝트연구팀으로 참여했다.

또 3개월간 전문교육을 수료한 육성연구팀(인큐베이팅랩) 소속 작가 14명이 합류해 디지털예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눈에 보여주는 전시를 완성했다.

이번 행사는 '빛의 궤도(Echoes of Light)'를 주제로 몰입형 영상예술(미디어아트), 동력 조형예술(키네틱 아트), 착시 입체 영상(아나몰픽 아트) 등 다양한 장르를 선보인다.

광주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문화예술산업 확장성과 디지털기술 융합 가능성을 집중 조명하며,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창작 거점으로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시는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로서 이번 행사를 통해 디지털예술 중심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하는 한편 지역 예술가들에게는 새로운 실험의 장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예술과 기술이 만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김명수 기자

화순군, 청년들의 크리스마스 공작소 행사 개최

오는13일 오전 11시,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만나요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12월 13일(토) 오전 11시부터 화순읍 청춘신작로 어울림광장에서 청년들의 크리스마스 공작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화순군에서 활동하는 청년공동체, 청년창업가, 청년푸드트럭 등 10개 팀이 한자리에 모여 공연, 푸드트럭 메뉴 맛 평가, 체험부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크리스마스 공작소 행사다.

청년 푸드트럭에서는 메뉴 맛 평가 부스를 운영하고, 청년공동체 부스에서는 '크리스마스 도어벨 만들기', '석고방향제 만들기', '운세 및 퍼스널컬러 진단 프로그램', 청년창업가 부스에서는 '겨울정원 테라리움 만들기', '캘리그라피 체험'을 진행한다.

또한, 청년 음악가의 공연과 뱅쇼 만들기, 크리스마스트리 소원카드 달기를 진행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선사할 계획이다.

화순/김종환 기자